



강골마을



열화정



제암산자연휴양림 데크길

보성군,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하는 고향 여행

문학·역사여행, 액티비티까지 5일 연휴 야무지게 즐기자!

추석을 일주일 앞둔 고향은 타지로 떠난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전통시장은 활기가 일고, 들과 밭은 추수로 손이 바쁘다. 미리 별초를 하고 마을버스 정류장도 깨끗하게 물청소를 마쳤다. 가족과 함께 차레를 올리고 즐거운 인사를 마쳤다면 이번 명절, 가족들과 함께 고향의 구석구석을 여행해 보면 어떨까.

▲별교로 떠나는 문학·역사 기행

별교는 소설 태백산맥을 품고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이다. 제주 4·3사건을 시작으로 6·25전쟁, 휴전협정의 코앞까지 다루고 있는 장편 태백산맥은 조정래 작가의 대작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현실보다 더 리얼하게 조명하는 작품이다.

별교에서 여행을 시작한다면 태백산맥박물관에서 조정래 작가가 썼던 작가노트, 아들과 머느리가 쓴 필사본 태백산맥 등 다양한 전시품을 관람해보자. 상시 운영하고 있는 탁본 뜨기, 나만의 컵 만들기, 느린 편지쓰기도 체험할 수 있다.

태백산맥에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밖으로 나가 바로 뒤편 현부자 집, 소화의 집을 먼저 둘러보자. 소설 속 묘사와 실제 모습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비교해 보면 구경하는 재미가 배가 될 것이다. 일본 건축 양식과 한국 양식이 섞인 현부자 집을 보며 그 시대를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소화의 집까지 다 보았다면 흥교를 건너 부용산 공원 산책을 추천한다. 부용산 공원 전망대에 올

라가면 별교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부용산에서 내려와 길을 따라 걷다보면 붉은 벽돌을 바탕으로 사이사이 돌을 깎아 박은 별교금용조합 건물을 만날 수 있다. 소설 속 금용조합 송기묵이 근무하던 곳이다. 이 외에도 보성여관(남도여관), 별교역, 철다리 등 별교 읍을 둘러 다양한 소설 속 장소들과 조우할 수 있다. 중간에 힘이 들면 보성여관에 들려 차를 한 잔 하며 소설의 한 대목을 곱씹어 보자.

▲득량에서 펼쳐지는 가족만족 체험 여행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해야 한다면, 옛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시간이 멈춘 곳 득량으로 떠나보자. 득량역 바로 앞 길, 득량의 메인 도로를 따라 문구점, 전파상, 다방, 의상실 등 다양한 추억을 자극하는 거리를 만끽할 수 있다. 다방에서 쌍화차 매실차 등 전통차를 마시며 추억에 잠겨보자. 의상 대여소에서는 교복, 교련복을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다.

득량역 앞 7080추억의 거리를 다 즐겼다면 우리 선조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강골전통민

속마을로 떠나보자. 강골마을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유명해진 관광지이기도 하다. 100년이 넘는 문화재급 한옥들이 각각의 개성을 뽐낸다.

강골 마을의 한옥들은 조선 시대 한옥 양식 중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곳이다. 강골마을에 있는 열화정(정자)와 이용옥, 이식래, 이금재 가옥 등 3채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이곳에서 하룻밤도 가능하니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고백에서의 운치 있는 하룻밤 어떨까.

이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비봉공룡공원으로 떠나보자. 비봉공룡알 화석지(천연기념물 제 418호)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룡알등지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공룡알 화석지에서 진짜 공룡알을 만났다면 보성비봉공룡공원에서 다양한 100여종의 공룡 로봇과 영상 등 공룡시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존이 준비돼 있다.

화석전시장, 주라기파크, 디노빌리지와 국내 최초 공룡쇼도 만나볼 수 있다. 공룡쇼는 4D영상쇼, 워킹공룡쇼 등 러닝타임이 약 40분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12시 14시 16시 총 3회, 주중(월화제외)에는 14시 1회 공연한다. 이번 추석 연휴 5일 동안 매일 3회 공연으로 귀성객을 맞이한다.

보성비봉공룡공원 입장료는 성인 4,000원 아동 2,000원이며 공룡알쇼, 3D 애니메이션, 워킹공룡쇼 주말패키지는 1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10시~20시(마지막 입장 19시)이다.

▲회천·웅치에서 자연과 힐링 여행

산과 자연을 좋아한다면 제암산으로 떠나보자. 황제의 산이라고 불리는 제암산은 가족친화적인 숲속 쉼터다.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해야 하는 보행약자들도 안전하게 산 속을 거닐 수 있도록 무장애 다능길(5.8km) 산악트레킹로드가 있다. 다양한 나무와 야생화 사이에서 자연의 정취를 느껴보자.

휴양림을 좀 더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면 에코어드벤처와 전용 썰라인을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에코어드벤처는 제암산 곳곳에 설치된 체험시설(외줄타기, 하늘다리건너기)로 스릴을 느낄 수 있다. 전용 썰라인을 타고 제암산 호수를 가로질러 볼 수 있다. 예약은 3일전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

이제 회천으로 넘어가보자. 울포솔밭해변에서 위풍당당 자랑하고 있는 소나무와 고운 은빛 모래를 만끽하자. 9월 오픈한 울포해수욕장에서 물과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며 연휴 동안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다. 울포해수욕장은 단순한 세신 목욕 문화를 탈피하여 힐링과 휴양의 공간으로 차별화한 보성군의 야심작이다. 2층 남녀 해수욕탕은 기존 녹차탕의 2배 규모이며, 3층은 테라피 체험시설로 스킨데라피, 황토방, 아쿠아토닉, 야외 노천탕 등이 준비 돼 있다. 야외 노천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수영복을 지참하거나, 센터에서 대여(2,000원)할 수 있다.

회천을 벗어나기 전 봇재를 둘러보자. '봇재'는 보성읍과 회천면을 넘나드는 고개를 부르는 말

로, 봇짐꾼들이 무거운 봇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봇재에 둘러 보성역 사문화관에서 구비문학과 보성을 빛낸 위인 등 고향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2층 그린다향카페에서 녹차빙수 등 다양한 녹차 음료를 마시며 신선한 회천의 해풍을 맞으며 신선한 차향으로 온 몸을 가득 채워 가벼운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다.

보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녹차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암산 다원에서 각종 드라마와 CF 속의 주인공이 돼볼 수 있다. 보성에서 회천으로 들어가는 길 아래로 펼쳐지는 차밭의 경관은 청량감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이번 추석 연휴 가족들과 고향을 여행하며 즐거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자.

▲보성 식도락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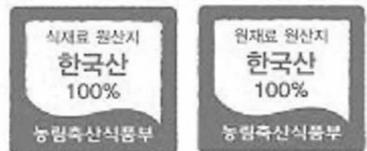
별교에서는 짱뽕어탕을 먹어보자. 쫄깃하고 다양한 가득한 짱뽕어로 구이, 전골, 매운탕까지 먹으면 도심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짱뽕어 요리를 체험할 수 있다. 회천에서는 전어와 새우가 제철이다. 고소한 맛이 깊어진 전어 코스요리는 회, 무침, 구이까지 먹어볼 수 있다. 새우는 소금구이로 즐겨보자. 지금 한창 살이 탱탱하게 올라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해산물이 당기지 않는다면 녹차떡갈비와 녹돈 구이를 즐길 수 있다. 녹차를 가미한 돼지고기, 소고기는 맛이 깔끔하고 담백해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보성에서 남도의 풍부한 농수산물들을 즐겨보자. 특히, 회천 수산물위판장에 가면 갖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만나 볼 수 있다. /조상기 기자 gie9928@

☎ 태백산맥박물관(061-858-2998), 보성여관(061-858-7529), 보성비봉공룡공원(1833-8777, 연중무휴), 제암산자연휴양림(061-852-4434, 연중무휴), 봇재(061-850-5965), 울포해수욕장센터(061-850-8740, 연중무휴)



원산지 인증제도는 가공식품이나 음식점에서 단일 국가산 원료를 96%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인증·관리하는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도 시행



인증대상

가공식품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및 가공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음식점등 :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 및 제공하는 식품점(객업·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및 집단급식소

인증절차

인증신청 : * 접수 및 심사(인증기관) * 인증 표지 및 현판 사용(신청인)

인증기준

가공식품 : 품목을 기준으로 비합비 중 96%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국가산일 경우
음식점등 : 전체 식재료 중 96%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국가산일 경우

인증표시

제품, 포장, 메뉴판, 간판 등에 원산지 인증 표시 가능

